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당 울뜨레아**
울뜨레아 월례 회합은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 **양로원 미사**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평협회 모임**
8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에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각 부서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신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
주제 : 내적 자유를 향한 여정
일시 : 8월 14일(수) - 18일(일)
참가비 : \$480 선착순 : 50명
문의 :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29일(일)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마틸다 구역 : 8월 7일(수) 오후 7시에 소성당에서 구역미사, 미사 후 성당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박영희 마틸다 자매님 주관)
- **환영합니다**
김경훈 바오로 형제님과 이문경 베로니카 자매님 마리아 구역으로 전입 오셨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평협회**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과**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제1독서	코헬렛 1, 2; 2, 21-23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2독서	콜로새서 3, 1-5. 9-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루카 12, 13-21
봉헌성가	423번 천년도 당신 눈에는
성체성가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퇴장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오늘의 묵상

오늘 제1독서는 재산 추구의 허무함을 들려줍니다. 세상의 일은 실체가 없고 갑자기 사라지며,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헛된 것이므로, 가난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뜬구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 곧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참된 존엄을 이루는 모든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엄과 참된 기쁨의 원천이지만, 물질적인 재산의 추구는 세상의 많은 죄악과 불의 그리고 무질서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물질적인 재산의 추구에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곧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비유에서,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부유한 사람의 죄는 재물에도 그의 장래를 보장하는 관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신의 재물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모은 죄인입니다. 그는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고, 자신의 삶에 이기주의적 착취밖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열려 있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유지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풍요함이나 부족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18주일 8월 4일	연중 제19주일 8월 11일	연중 제20주일 8월 18일
제1독서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권명자 율리안나
제2독서	박영희 마틸다	김재숙 제노베파	황선동 스테파노
봉헌자	권수희, 이순덕	안우풍, 이경실	김영복, 오세환

우리들의 주일정성

< 7월 28일(일) >

봉헌금	\$450.00	
교무금	\$300.00	김재숙(5-7)
감사헌금	\$100.00	성경 공부반
예물봉헌	\$35.00	
Total	\$885.00	